

돈육수출을 궤하는 태국의 종돈업자들



전 종 룰 역
(본회 원주지부장)

●양돈경영의 계열화

태국은 돈가의 큰 변동에 의해 양돈업의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여 가고 있다. 소규모 경영자의 다수가 양돈을 그만두는 반면, 대규모경영은 주요한 생산자가 경영을 계열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 최대의 종돈회사는 경영의 계열화, 가공처리공장의 조업, 아세아의 주요시장에 돈육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타그로 하이브리드사는 이미 이 방향으로 첫발을 내딛고 자사의 육돈농장의 확장, 처리가 공장 그리고 수출사업에의 앞날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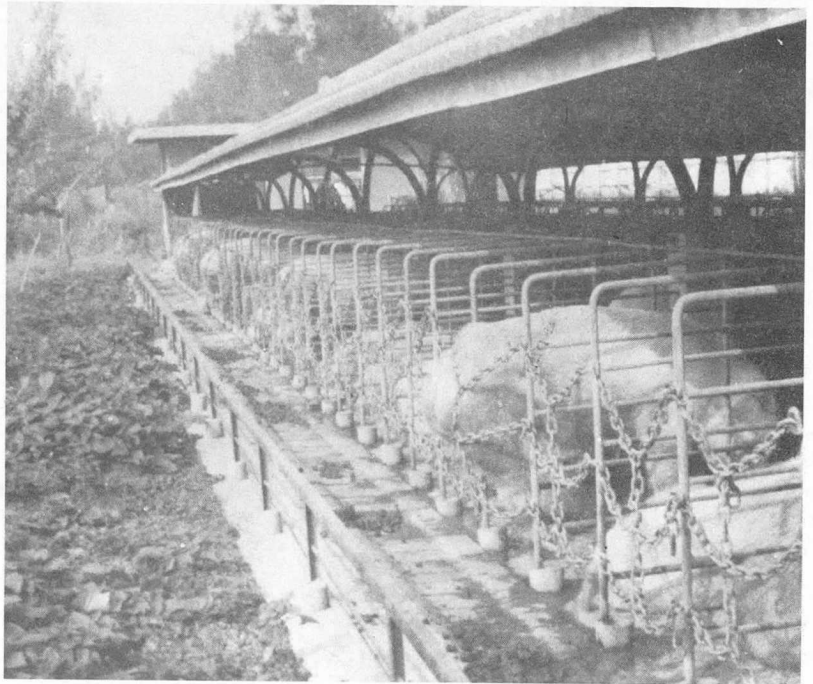
현재 베타그로사는 태국내에 9개농장을 갖고 있다.

두개의 GGP농장과 두개의 GP농장이 방콕의 북동 150km 지점에 있고, 5개의 종돈장을 태국 각지에 갖고 종돈의 공급을 행하고 있다.

이 회사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과거 2년간에 걸쳐 연간 2만두의 PS를 생산하고 있으나, 3년 이내에 10%를 늘리고 연간 2만 2천두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이 회사는 PS의 판매만을 행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자사의 육돈생산 농장을 확대하여 남은 PS를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근자 수년이내에 3~4개의 육돈생산 농장건설의 계획이 있으며, 현재 땅값 등의 조건이 맞는 알맞은 곳을 찾고 있다. 각 육돈생산 농장은 8천두의 사양규모이고 연간 1만 6천~2만두의 육돈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건설예산으로는 100만불(미화)로 잡고 한 농장

태국에서 최초의
돈육수출 기업이 될
베타로그사는 지육을
냉장으로 홍콩,
싱가폴, 일본에 수출
할 계획으로 있다.



을 1년 이내에 나머지도 6개월 간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육돈생산농장에서 생산된 육돈은 처음에는 가축상을 통하여 도축장에 보내나 2년 이내에 가공처리장을 완성시켜 육돈을 수출 및 국내용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아세아시장에 수출 예정

베타로그사는 지육을 냉장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수출할 생각이다. 아마도 이 회사가 태국에서 최초의 돈육수출기업이 될 것이다.

이 회사는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생산자와는 가격적으로 경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송비는 중요한 요소이나 이 회사의 종돈은 유럽계로 지방이 많은 지방종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와 일본도 중요한 고객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태국내의 돈육소비 신장은 앞으로도 연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타로그사는 태국내 시장사정이 좋지 않을때에 외국에 판매를 하므로써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출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태국의 국내 돈육소비량은 현재까지 태국의 공업화나 경제의 성장에 따라 신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7kg 이었으나 현재는 8~10kg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돈육수요는 닭고기나 기타 식육에 뒤지고 있다. 돈육가격은 닭고기와 거의 비슷하나 태국에서는 닭고기 요리가 다양하게 발달하여 돈육의 소비를 억누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닭고기는 후라이드치킨 등 패스트푸드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비하여 돈육은 이와같은 상품이 없다.

● 소규모 농장의 경영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도 있으나 양돈가는 양돈업이 주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파동주기는 일시적으로 단기간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다수의 소규모 농가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한다.

태국시장의 돈가 파동주기는 보통 2~3년이다. 1987년에 저돈가, '88년부터 회복을 시작하면서 '89년의 돈가는 높았다. 최근 수년간 개인소비가 확대되고 이에 더하여 많은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함으로써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격의 회복에 큰 몫을 하였다.

이 파동주기는 투기적 욕심으로 양돈을 시작한 소규모인 양돈가의 낙관주의에 의해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돈가가 높을 때에는 많은 농가에서 돼지를 사육하게 되어 곧 돈육이 공급과잉으로 되어 돈가가 하락한다.

최근에는 소규모농장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로도 종돈시장의 지분(持分)으로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 조사에 의하면 태국은 50만두의 모돈을 사양하고 있다. 연간 갱신율은 돈가에 의해 변동하나 베타그로사는 1989년에 25~30%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5만두의 갱신돈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종모돈은 암수비가 1:10으로 연간 1만5천두가 필요하다.

육돈시장의 40~50%는 소규모 농장이 점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통상 주요한 종돈장으로부터 가격이 높은 종돈을 사고자 하지 않는다. 종돈을 자가생산하는 대신 육돈을 종돈으로서 대용하고 있다.

● 종돈에 요구되는 지제의 강건

태국의 종돈생산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 같이 베타그로사도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의 F₁에 듀록 수컷을 교배하는 3원교배를 행하고 있다.

베타그로사에서는 1989년에 170두의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의 순수원종돈을 영국의 NPD사로부터 수입하였다. 종돈은 30kg(11~12주령)에서 수입하고 1개월간 검역을 받았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종돈은 다른 종돈장에 100kg(24~36주령)에서 판매했다.

또 베타그로사 고객의 70%는 순수종모돈을 구입하고 있다. 베타그로사가 NPD의 대리점으로 된 것은 최근 1년 정도이다. NPD와의 관계는 198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타그로사의 핵심농장의 창설시에 육종적 기초가 될 종돈을 공급해 주었다.

태국의 시장에서는 햄의 양이나 살코기율과 같은 수준으로 지제의 강건함이 요구된다. 베타그로사에서는 NPD의 육종계획에 근거하여 10년간 개량을 하여 왔으며, 특히 다리의 강건성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리의 문제는 거의 없고 미국계의 듀록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태국의 다른 종돈장에서는 미국계 듀록의 햄의 양과 스트레스의 감수성이 없는점을 다리의 강건성과 같은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듀록의 종모돈은 수가 증가하는 한편, 암놈계는 유럽종이 계속 사용되리라 보여진다.

베타그로사의 검정시험에서는 체중 90kg(21주령)에서 등지방 두께는 많이 얇아지고 있다. 현재 햄의 양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개량이 늦다. 베타그로사에서는 가축상을 상대로 육돈의 햄 모양을 근사하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베타그로사에서는 양계업계에 일어난 통합화가 태국의 양돈업계에도,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농장은 소멸되고 주된 대규모경영이 남을 것이다. 소규모 양돈가는 재원을 잃고 저돈가의 해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태국내에서 살아남을 양돈장은 적어도 40~50두의 모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향은 저돈가 시기였던 1987년부터 시작하여 집약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베타그로사가 연구를 시작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